

비대면 금융·인공지능 활용 일상화 은행, 채용 줄여도 IT 인력은 증원

4대 시중은행, 상반기 채용서 AI 플랫폼 개발 등 IT 전형 확대
1분기 신규 예·적금 90% 비대면
창구업무·상담에도 AI 적극 도입
기존직원 디지털 문해력 향상 나서

국내 은행의 '인재상'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 금융과 규제환경 변화로 개발 능력과 인공지능(AI) 전문성 등 디지털 역량이 금융기관의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다. 은행들은 채용 과정에서 정보기술(IT) 분야의 비중을 키우고, 영업점 및 본점 직원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 AI 플랫폼 개발 등 IT 부문 채용 전형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운영했다. 아울러 일부 은행은 수시채용 및 인터뷰를 통한 IT 인력 충원도 별도 진행한다. 영업점 축소나 지속되면서 은행의 전체 채용 규모는 줄었지만, IT 인력 충원 규모는 지난 몇 년간 빠르게 늘고 있다.

과거 은행권은 IT 부문은 기피업종으로 분류됐다. 망분리 규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사용 제한으로 개발한

경이 제한됐으며, 전산망의 운영체제(OS)도 1960년대에 출시된 메인프레임(Mainframe)과 코볼(COBOL) 등 구시대적이었던 만큼 업무의 호환성도 낮았다. 은행의 영업환경도 영업점 중심의 오프라인 환경이었던 만큼, IT 인력의 중요도는 높지 않았다.

최근 은행권에서 IT 인력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은 비대면 금융이 일상화하면서 은행 간 경쟁이 온라인으로 이동해서다. 올해 1분기 4대은행의 예·적금 신규 가입의 약 90%는 비대면 거래로 진행됐고, 신규 개인 신용대출의 80~90%도 온라인 환경에서 공급됐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은행 간 금리 비교도 손쉬운 만큼, 은행 앱의 UX·UI(인터페이스) 접근성 등 비(非) 금융적 요소가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은행권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인공지능(AI)의 활용도 인재상 변화의 이유다.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은 비용 효율화를 위해 창구 업무나 상담 등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AI 도입으로 은행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학습이나 신규 모델 개발 등에서 IT 인력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졌다.

망분리 규제 완화, SaaS의 제한적 허

용 등 규제환경 변화도 금융권의 채용 양상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부통제 기준을 충족한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망분리 예외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올 상반기 별도 승인 없이도 은행 내부 업무망에 SaaS 활용을 허용한 데 이은 조치로, 금융권에서는 금융환경 변화에 걸맞는 점진적 규제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 은행들은 기존 직원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도 힘쓴다. 4대은행은 모두 임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 및 개발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내부 공모전이나 심화교육을 통해 특화 인력을 발굴 및 육성하고 내부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기존 직원의 IT 역량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로 은행 앱 개선이나 인공지능 활용에 특화된 인력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각 은행도 IT 인재의 채용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며 “은행 간 경쟁이 온라인 환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만큼, 금융권의 IT 인재 선호도가 더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에 위치한 인프로니아 홀딩스 본사에서 (왼쪽 두 번째부터) 인프로니아 홀딩스 키베 카즈나리 대표집행임원 사장과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日 인프로니아, 인프라 사업 협업

해외 PPP 사업 등 공동 추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일본의 종합 인프라 서비스 기업 인프로니아 홀딩스(Infroneer Holdings)와 글로벌 인프라 개발과 컨설팅 및 PPP 사업 등 분야에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도 치요다구에 소재한 인프로니아 홀딩스 본사에서 인프로니아 홀딩스 키베 카즈나리 대표집행임원 사장과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인프로니아 홀딩스는 건설사업을 통해 축적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한 종합 인프라 서비스 기업이다. 일본 내 공항·도로·상하수도·경기장 등 컨설팅 사업과 PPP 시장을 선도하며, 다양한 인프라의 개발과 건설·운영·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삼성물산의 풍부한 EPC 수행 경험과 관리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로니아 홀딩스의 건축·도로·수자원 등 개발·컨설팅 및 PPP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인프라 개발 시장을 선도할 예정이다.

양사는 ▲일본 국내외 개발 및 컨설팅 사업 협업 ▲해외 PPP 사업 공동 추진 ▲공동 투자 및 기술 인력 교류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계획이다.

키베 카즈나리 사장은 “양사가 보유한 강점을 결합해 일본 및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가 함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철 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인프로니아 홀딩스의 탈 EPC 전략에 따른 투자개발 등의 사업 전문성과 삼성물산의 글로벌 사업 수행 경험을 결합해 일본과 글로벌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융사 평가시 소비자 정보제공 실적 반영

금감원, 소비자 금융피해 예방 일환
상품설명서 SMS 발송 등 평가 포함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실적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보호 정보 확산을 위한 금융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소비자단체, 금융업계 및 전문위원회가 참여하는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가 소비자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금융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한 실적을 반영한다. 소비자보호 정보의 상품 설명서 반영 여부나 문자메시지(SMS) 발송을 통한 소비자보호 제공 실적 등이 금융회사의 실적 평가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감원 차원에서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숏폼·카드뉴스 등 시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소비자보호 정보 확산에 힘쓴다. 기존 보도자료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은 확산 규모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별도의 시각물을 구성해 소비

자보호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파한다는 목표다.

소비자 경보와 유의사항을 상품 판매 시부터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한다. 소비자 경보 발령 시 관련 내용 및 필요성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기존 소비자에게 SMS 등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금융회사의 참여를 독려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널을 통한 주요 민원 사례 안내도 요청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해 금융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승진 기자

공유오피스 대부업 사업장으로 못 쓴다

금융당국, 등록요건 대폭 강화
유형 대부업체 등록·양도 금지
'쪼개기 대출' 편법영업 제한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해 대부업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유형 대부업체' 등록과 등록증 양도·판매가 금지되고, 소득·부채 확인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대출' 편법 영업에도 제동이 걸린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하여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하고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는 제외한다. 실제없는 대부업체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일부 대부업체가 타 업체와 연계해 재부 이용자에게 나누어 대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지금까지 차주는 18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할 경우 300만원씩 6개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갖아야 했다.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왔던 편법 영업이다.

앞으로는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의



Chat GPT가 생성한 불법사금융 차단 이미지.

무의 면제기준이 되는 대부금액 산정시 대부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해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 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기관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일선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확인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장이 직접 요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을 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는 해낸다, 목표로 새 미래 만들자”

호반그룹 창립 37주년 기념식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이 창립 37주년을 맞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해낸다’는 자신감과 치밀한 실행력으로 목표를 반드시 이뤘다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37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안에 내재된 이기는 습관인 ‘위닝 스피릿’을 더욱 각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김대현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윤혜 호반프리퍼티 경영총

괄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와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화단결’과 ‘정직과 원칙’이라는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열린 소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행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호반호텔리조트, 호반프리퍼티, 삼성금거래소, 대아청과 등 주요 계열사 장기근속 임직원 241명에게 근속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또한 20여 개 우수 협력사에 상생협력 지원금을 전달하며 동반성장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호반그룹은 창업 이후 건설을 중심으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37주년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에게 ‘정직과 원칙’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성장을 당부하고 있다. /호반그룹

로 제조, 유통, 레저, 금융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성장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그룹 전반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며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